





1. 자녀 발달 단계

유아기와 걸음마기 (생후 3살까지) 학렴전기 (3~6살)

학령기 (초등학교 연령)

청소년기(사춘기)

전기: 중학교

줌기: 고등학교

후기: 대학교

"청소년기는 제 2의 기회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자녀 자신 뿐 아니라 부모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습니다.
청소년기 자녀의 반항은 성인으로서 자신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의 눈에 미숙해 보이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온전한 성인으로 설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는 집착과 강요와 간섭과 잔소리하는 태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청소년기 발달과제

자아 청제성 확립 (Self-identity)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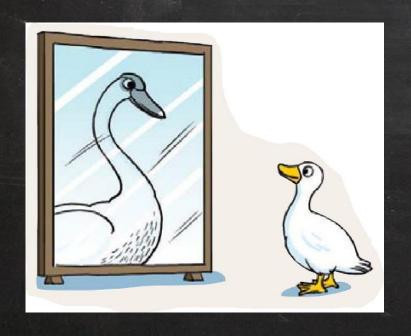
역할 혼동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아 첨제섬 (Self-identity)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등의 질문에 대한 주세적인 인식,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모습

→ 자신의 성격, 가치관, 능력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인간이 사회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울삼아 자신 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 악하는 것을 '거울에 비친 자아'라고 한다.

→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 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체적 변화 반항 나는 누구 인가? 독립 이성 친구 미래 불안

점체섬의 묘소들



그룹(친구, 학교, 교회 등)과 롤 모델(Role model)의 중요성

부모, 스승, 선배, 친구와 같은 대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에게 사랑과 용납과 인정을 받으면서 정체성 형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실망하면 하나님을 떠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참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

"청소년기 자녀에게 영적 멘토와 롤 모델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3:13~17

-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공격에 개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은 왜 반함하고 분노하는가?

"분노와 반항은 성인으로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 1. 청소년기 자녀는 <u>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시기입니다</u>. 따라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자기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 2.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부담하다고 여겨지면 분노합니다. 부모의 말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여겨질 때 분노합니다. 부모의 신앙에서 거짓을 보았을 때 반항합니다. 특히 부모가 서로 미워하며 불화할 때 분노합니다.
- 3.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공부만 하라고 <mark>강요할 때 분노합니다</mark>.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일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시간까지 <mark>통제할 때</mark> 청소년 자녀는 분노하고 반함합니다.

개인생과 반항의 여유 공간을 주십시오.



3. 의존과 독립에 따른 부모 역할

의존 애착

VS

독립 분리

청소년기 자녀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독립과 분리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사랑과 의존을 요구하는 <mark>모순성</mark>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기를 열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지지와 의존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독립을 힘껏 격려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그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용납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서서 도와주지는 마십시오. 지나치게 도와주지도 마십시오. 자녀는 독립과 책임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1) 코치가 되어 주세요.

좋은 코치는 스스로 뛰는 사람이 아니다. 선수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는 사람이다.

- 1. 권한을 양도하며,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지 마십시오.
- 2.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이끄십시오.
- 3. 훌륭한 코치는 강요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충고나 잔소리 역시 효과가 적습니다.
- 4. 훌륭한 코치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 5. 훌륭한 코치는 그들의 한계와 약점을 이해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 1.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때로는 자살을 결심할 만큼 어렵고 심각한 고민들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청소년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2. 잔소리나 충고는 금물입니다. 그냥 들어 주십시오. 해결책이나 대답을 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 3. 어떤 이야기를 해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말해주어서 고맙구나." 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3) 부모의 삼황을 말려 주세요.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을 자신과 의논해 줄 때, '부모가 나를 신뢰한다.'고 믿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 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너는 알 필요가 없어." 또는 "너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부나 해라."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 려 반대입니다. 부모의 형편과 마음을 진솔하게 말해주면 자녀 는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배웁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말씀

(사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람하였은즉

(습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신 31: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암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입니다.





- 1. 내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 었습니까? 나누어 보세요.
- 2. 그 시절에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말이 나를 가장 화나게 했었나요?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 3. 나의 청소년 자녀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 어밀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세요.



4. 나의 청소년 자녀가 나의 어떤 점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있을까요?

5. 청소년 자녀를 위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면 나의 어떤 면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할가요?

6. 나의 청소년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고 나누어 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도종환(1955~)